

한국 VS 미국 닭고기 축제

Tip. 닭을 사랑하는 나라, 프랑스



이영미 전시기획자

닭은 인류의 역사와도 인연이 깊다.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 서식하던 야생 닭을 아시아인들이 가축으로 사육해왔고 후에 유럽으로도 전해졌다. 그 중 프랑스에서는 닭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. 백년 전쟁 후 백성들이 궁핍함에 시달리자 당시 왕이었던 앙리 4세가 매주 일요일에 닭 요리를 먹도록 하여 이후 부강해졌다는 전통에서 유래하여 현재 닭은 프랑스의 국조가 되었다. 전국민이 열광하는 스포츠인 월드컵 축구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에도 닭 문양이 등장할 정도이니 이들에게 닭이 지닌 의미는 매우 각별한 거 같다.

음식과 와인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

문화로 그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음식축제에서도 나타난다. 프랑스에서는 돼지, 치즈, 푸딩, 제과·제빵, 와인, 물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 축제가 열릴 정도이다. 그 중 치킨 페스티벌은 남서부에 위치한 노르망디 지역의 생세베르(Saint Sever)에서 열린다. 지중해성 온화한 기후를 가진 전원지대로 중세의 분위기가 곳곳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소도시이다. 이곳에서는 매년 12월에 치킨 페스티벌이 열리며 이 지역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양계 농가와 이 지역 명물로 꼽히는 로스트 치킨 같은 독특한 이 지역의 닭 요리를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.

세계 최고의 요리사와 와인업자의 대다수가 이 나라에서 배출되었고 음식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농수축산물이 풍부한 자연 환경과 지역 산업, 그리고 이를 지역행사로 이끌어낸 주민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한다. 🐔



프랑스의 국조인 수탉



치킨 페스티벌이 열리는 생세베르



1792년 1793년도에는 주화의 뒷면에 수탉이 새겨지기도 했다.



Vigneux-Hocque의 희생자 기념탑